

역사속으로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으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6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1_ 아그파 국내 사업 개시

유럽의 사진 관련 전문 제조업체인 아그파게바트 그룹이 한국에 1백%를 출자해 아그파코리아로 정식 출범했다. 인쇄신문은 인쇄인을 비롯한 관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진 창립 기념식에 대해 사진 관련 분야의 기술이 향후 몇십년은 앞당겨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80억원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영화·포지티브·마이크로 필름 등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쇄신문은 아그파코리아의 향후 활동 분야 폭에 대한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산사식 식자, 인쇄용 관련 장비 등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시 아그파코리아는 세계에서 28번째 현지 법인으로 등록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홍콩에 이어 세번째로 설립됐다.

2_ 동양잉크 저공해 잉크 출시

'환경 보호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은 가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한 동양잉크(대표 최청운)가 환경을 고려한 획기적인 잉크인 'COMBI', 'COSMO-WEB', '스키는 이프'를 출시했다. 1993년 6월4일자 인쇄신문에 게재된 이 기사는 당시 환경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러 기업들이 앞다퉀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보이는 사회상을 반영했다.

'COMBI'는 휘발성 유기물을 최소화한 저공해 잉크로 인쇄기상에서 내림이 양호하며 우수한 시각 효과가 탁월했다. 'COSMO-WEB'은 유해 배기가량을 최소화했고 탁월한 망점 재현과 내마찰성이 강화됐다. '스키는 이프'는 넓은 수폭, 넉스키 성능을 부여한 잉크로 연색성을 실현했다. 인쇄신문은 이 제품들에 대해 연소 대기 가공 단계를 최대한 많이 보강해 연소나 마찰 시 발생할 수 있는 잉크 고유의 냄새와 오염 물질이 기존제품에 대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호평했다.

3_ 6월은 불황의 달(?)

고속인쇄기 가동업체, 제본 공장, 서적, 지류 상가 등 인쇄 관련 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달은 6월. 인쇄문화시보는 1980년 6월16일자 1면 머리 기사를 통해 졸업·입학식 등이 활발한 3월을 기점으로 출판, 인쇄업이 호황을 누리다가 이에 대한 수요가 차츰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보는 각 관련 업체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동시에 게재했으며 '독서 계절인 가을철에는 회복될 수 있을 지'라는 리드문을 통해 출판·서점가의 실무진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시보는 인쇄계 등 월간 잡지들도 각 관련 업체들의 체산성 악화로 인해 광고 수주가 상반기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음을 다루며 인쇄·출판

업이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음을 강조했다. 또 각 관련 매체들의 주요 기사를 분석한 결과, 하반기에 접어드는 6월을 기점으로 잉크 등 각종 수입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4_ 국일제지 공장 창설

박엽지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국일 제지가 공장을 창설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맞이했다. 1979년 6월16일자에 보도된 이 기사를 통해 시보는 '주생산품은 박엽지류'가 될 것이라는 리드문을 통해 용인에 들어서게 될 국일제지의 공장 설립에 대한 파급효과를 다뤘다. 5천평 대지위에 공장 건물이 5백평을 차지했으며 최신 사식기 등을 비롯한 첨단 장비들이 구축됐다. 조합원 50여명에 의해 가동된 이 공장의 첫 출시 제품은 편광지와 노루지 등이었으며 각종 박엽지 생산 체제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이 공장을 통해 국일제지는 박엽지뿐만 아니라 연간 3600t 규모의 순백지, 은광지, 빙과류 포장 등을 생산할 수 있었다. 시보는 이 같은 공장 설립의 의미에 대해 인력을 배분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2·3교대가 빈번한 당시의 작업 흐름에서 고용창출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5_ 한글 잉크젯 인쇄방식 등장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에 의해 한글 잉크젯으로 인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시보는 1977년 6월15일자 보도를 통해 보통종이 사용이 가능하고 1분에 7200여지를 찍어낼 수 있는 잉크젯 인쇄방식이라고 소개했다. 연구소 구지회 박시탐에 의해 개발된 이 방식은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닷 매트릭스(Dot Matrix) 인쇄 방식의 잉크젯 기법을 적용, 이를 활용한 것으로 영문을 검할 수 있는 프린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시보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시작되는 연구 개발의 성과물에 대해 국산 인쇄 기술도 과거와는 다르게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 방식의 성공을 기점으로 과거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했던 봉급명세서 작성 및 전화·전기 요금 등이 반자동으로 이뤄져 시간 및 인력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6_ '직지' 파리서 발견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5년이 앞선 고려 금속활자인 '직지' 가 모습을 드러냈다. 인쇄문화시보 1972년 6월15일자에 보도된 이 기사는 '최고의 인쇄본 직지 파리서 발견'이라는 머릿글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 통고를 밝혀줌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사용한 나라

로 남게 됐다고 밝혔다. 시보는 우리 역사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온 국민이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대서 특필했다. 이 같은 배경은 유네스코가 당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서 '책의 날'을 맞아해 고려 우왕(1377년) 때 제작된 '직지'를 전시하게 됨으로써 밝혀지게 됐다고 시보는 전했다. 당시 시보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쾌거는 국내 학계 전문가들도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얻는 계기가 됐다"고 호평했다.

7_ 복권과 인쇄기

1969년 6월15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눈에 띄는 광고가 하나 실렸다. '이 기계를 사용하시는 기업주는 복을 받으실 권리를 보장합니다'라는 문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 광고는 당시 서대문구에 위치하고 있었던 송전기계제작소가 대당 모든 장비 가격을 13만5천원에 출고한다는 내용이다. 1960년대 후반은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부국 강병의 지름길은 복지관함이 우선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상황. 정부 부처가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던 복권 구매를 통해 국력을 모아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시기였다. 또 인쇄기기관련 업체들이 신중 단어

로 자주 쓸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신', '새로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구독자의 시선을 끌었다. 당시 광주와 부산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던 송전기계제작소에는 자동고속재단기 등을 비롯해 금박기, 양장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8_ 일본 입체인쇄 성공

1966년은 일본이 세계에서 최초로 입체 인쇄에 성공한 나라로 기록된 해였다. 인쇄문화시보는 6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일본의 한 활판회사가 축적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체 인쇄에 성공했다며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수식어를 통해 평가했다. 시보는 1965년 당시에 이미 개발에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 방식을 위해 1년여의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입체 인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판독해야 하는 판지의 오차범위와 엠보스 가공법이 일률적으로 갈 수 없어 어려운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인쇄공정상의 정밀도를 극복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자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있게 지켜본 자사 공장 내에서의 작업은 대량화에 실패하며 아쉬운 여운을 남겼다.

〈장홍일 기자〉